



ICU 첫 여성총장 허운나 전 의원 “KAIST 뛰어넘고 싶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총장으로 허운나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허운나 신임총장은 지난 83년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정보화추진 자문위원, 제16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발의하는 등 IT산업 발전에 역량을 발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IT의원 연맹 초대회장,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산업과 교육을 연계할 전문가로서, ICU를 세계적인 IT 대학교로 성장·발전시킬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허운나 ICU 총장을 만나봤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허운나

미 플로리다주립대 연구교수,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과 교수(現 휴직중), 한양대 컴퓨터 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공학회장, 여성정보문화21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총선거획단 사이버선거대책본부장,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전국구),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NACIC)장, 국제IT의원연맹 초대회장, 새천년민주당 인터넷특별본부장

“마치 친정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강단으로 돌아온 허운나 ICU 신임총장의 취임소감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경기도 분당지역에 출마, “21세기 최고의 IT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걸고 발이 부르뜨도록 누볐으나 낙마하는 아픔을 겪었던 허 총장. 그녀에게 설 틈은 고작 한달 남짓에 불과했다. ICU를 IT 최고 학부로 키워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

“낙선의 우울함은 하루만에 털었죠. 전 원래 체념을 잘 하거든요. 선거가 끝난 후 네팔과 호주를 다녀오기도 했던 한달간이 무척이나 포근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었지만, ICU의 총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신기술의 근원지, 초일류 인재육성 꿈꾼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총장직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허 총장의 ICU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다.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많아요. 오히려 잘됐다”고 말할 정도.

“KAIST는 알지만 ICU는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

하다는 허 총장은 ICU가 KAIST를 뛰어넘도록 육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일을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뽐어내는 허 총장의 프로기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면이다.

ICU를 '넘버원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의 핵심은 '인력 제일주의'. 우선 첨단 기술동향에 뒤처지지 않고 가장 먼저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 및 기술개발 연구소와 긴밀한 연계해 ICU의 졸업생들이 세계 일류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학교육의 현장성도 강화한다. 단순히 잔심부름 수준의

인턴십에서 벗어나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편과 맞춤형·주문형 교과과정 개설, 글로벌 기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인턴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과 대학의 긴밀한 연계도 추진한다.

성공적인 공동연구와 산학협동은 기업에게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우수인재 발굴기회를, 대학에게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이미 해외에서는 산학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 예가 많다.

이에 허 총장은 세계적인 IT기업과의 적극적인 산학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발로 뛰겠다는 각오다. 특히 허 총장은 학교 재정기반의 건실화와 우수 교수 확보를 ICU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시설과 연구환경이 필요하고, 우수한 교수 확보를 위해서는 교수 처우 개선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튼튼한 재정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ICU가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IT영재 양성이라는 국가목표에 의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대학교로 봐야되기에 장기적으로는 자립방안을 마련하면서 당분간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허 총장은 대외역량을 발휘, 정보통신부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교수가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IT강국으로서의 진입에 KAIST 출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ICU 출신들이 신기술 시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2007년까지 아시아퍼시픽 1등 IT대학이 목표

허 총장은 "최고의 IT교육과정을 운용하는데 비해 수혜자는 너무 적다"며 "ICU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이 오게 하려면 학생수도 늘리고 경쟁력 있는 학위과정은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IT MBA로 볼 수 있는 ICU의 IT경영학부는 세계적으로도 몇 곳밖에 없는 만큼 독립적으로 잘 키워볼만 하고, IT에 BT, ET, NT를 접목, 시장창출을 지원해야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KAIST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러플린 교수가 총장으로 오는 것에 관해서는 "서로 도울 것은 돕겠으며 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떠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고 용기 있게 도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나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찾아옵니다. IT강국으로의 진입에 KAIST 출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ICU 출신들이 신기술 시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일단 2007년까지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1등 IT대학으로 우뚝 서는 게 목표입니다."

허 총장은 또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의원들에게 "이공계 중흥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신기술 동향, 시장동향, 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상임위가 바로 과기정위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17대 총선에서 보수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분당지역에서 낙선하긴 했지만 43%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허 총장은 보선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으론선 오직 ICU 생각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했고,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2000년 총선 때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에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었고, 2002년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죠. 16대 국회에선 과기정위에서 활동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행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17대 총선에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은 없습니다."

한편, 허 총장은 선거 후 남은 약 1억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분당과 대전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각각 5,000만원씩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성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